

[中韩对照]  
名著名篇阅读丛书

# 简·爱

# 제인 에어

[英] 夏洛蒂·勃朗特 著  
洪成一 郑英丹 金成鹤 编译

你以为我穷，不好，就没有感情了吗？

你错了，我也有。

如果上天赐予我金钱与美貌，

我会让你难以离开我，

就像现在我难以离开你一样。

我们的精神是平等的，

就如同我们经过坟墓，

将平等地站在上帝面前。

[中韩对照]

名著名篇阅读丛书

# 简·爱

제인 에어

[英] 夏洛蒂·勃朗特 著  
洪成一 郑英丹 金成鹤 编译

辽宁民族出版社

© 洪成一 郑英丹 金成鹤 2006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简·爱 / (英) 夏洛蒂·勃朗特著；洪成一，郑英丹，金成鹤编译。— 沈阳：辽宁民族出版社，2006.9  
(中韩对照名著名篇阅读丛书)

ISBN 7-80722-267-0

I. 简… II. ①夏… ②洪… ③郑… ④金…  
III. ①朝鲜语—汉语—对照读物②长篇小说—英国—  
近代 IV. H559.4 : I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6) 第110177号

---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市六〇六所印刷厂

幅面尺寸：145mm×210mm

印 张：9%

字 数：206千字

印 数：1-3000

出版时间：2006年 9月第1版

印刷时间：2006年 9月第1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金香淑

---

定 价：18.00元

联系电话：024-23284348

邮购热线：024-23284335

E-mail：lnmz@mail.lnpgc.com.cn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承印厂调换。

## 中韩对照名著名篇阅读丛书编委会

---

主编 洪成一

副主编 闵永大（韩）

编 委 黄春华 杨 磊 金成鹤

编 者 洪成一 黄春华 杨 磊

金成鹤 魏 国 郑英丹

安太顺 南菊花



# 简·爱

제인 에어

## 목 차 ◇



저자와 작품 소개	4
제1장 비참한 어린 시절	6
제2장 로우드 고아원에서	36
제3장 손필드 저택	52
제4장 친밀한 교제	74
제5장 사랑의 질투	108
제6장 메이슨의 방문	132
제7장 맹세한다! 같이 살고 함께 죽기를	156
제8장 손필드여, 안녕!	192
제9장 기나긴 시달림	224
제10장 폐허에서의 외침 소리	258
제11장 다시 만난 사랑	274



## 目 录 ◇



作者与作品简介	5
第一章 悲惨的童年	7
第二章 劳渥德孤儿院	37
第三章 初到桑菲尔德	53
第四章 亲密接触	75
第五章 嫉妒——爱	109
第六章 梅森来访	133
第七章 誓与我同生共死	157
第八章 别了，桑菲尔德	193
第九章 漫长的煎熬	225
第十章 来自废墟的呼唤	259
第十一章 心灵的归宿	275



## 저자와 작품 소개

**저**

자 샬로트 브론те(1816-1855)는 영국문학사상 이름을 떨친 여류작가이다. 그의 대표작 『제인 에어』는 강한 로맨티시즘 색채를 띤 열리즘 소설이다. 이 고전명작은 출판되자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사랑을 추구하는 젊은 남녀들의 필독 서적으로 되어왔다.

주인공 제인 에어는 고아로서 외삼촌의 집에서 자라게 된다. 외삼촌이 세상을 뜬 후 외숙모의 구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외숙모는 그를 로우드 고아원에 보낸다. 고아원에서 8년의 음울한 생활을 마친 후, 손필드 저택의 가정교사가 된다. 그녀는 손필드 저택의 주인인 귀족 로체스터와 사랑을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로체스터가 벌써 결혼을 했으며, 저택의 밀실에 갇혀 있던 미친 여인이 그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제인은 고민 끝에 로체스터를 떠나기로 결정한다. 여러 날 동안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던 제인 에어는 존 목사의 구원을 받고 마을학교 교사로 일하게 된다. 후에 친삼촌이 남겨준 유산으로 빈곤한 생활의 시달림에서 벗어난다.

애인의 외침소리에 제인 에어는 손필드로 돌아오게 된다. 그때 로체스터의 저택은 이미 폐허로 되었다. 제인 에어는 불구자가 된 로체스터와 다시 만나 사랑을 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본서는 원작의 4분의 1에 해당하다. 지면의 제한으로 제인 에어와 로체스터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대목들을 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장절과 제목은 선택한 내용에 따라 편역자가 단 것이다.

## 作者与作品简介

**作**者夏洛蒂·勃朗特(1816-1855)是在英国文学史上有着重要地位的女作家。她的代表作《简·爱》是一部具有浓厚浪漫主义色彩的现实主义小说。这部爱情经典传世之作一经发表就引起了强烈的反响，成为追求爱情的男女青年必读书目之一。

主人公简·爱是个孤女，自幼被寄养在舅父母家里。舅父去世后，受尽舅母的歧视和虐待。舅母把她送进了劳渥德孤儿院。在孤儿院过了八年艰难的生活之后，简到桑菲尔德当家庭教师，与桑菲尔德的主人，贵族罗切斯特相爱。当婚礼在教堂悄然进行时，简知道了罗切斯特先生早已结婚，那个被关在密室里的疯女人是他的妻子。她毅然决定离开他。简风餐露宿，历尽磨难，由牧师圣·约翰收留，并在当地一所小学校任教。后来，简得到叔父留下的一笔遗产，终于摆脱了贫困的生活。不久之后，简似乎听到远方爱人的呼唤，她回到桑菲尔德，那座宅子已经烧成废墟。简重新回到受伤残疾的罗切斯特身边，得到了自己理想的幸福生活。

本书篇幅只有原著的四分之一，由于受到篇幅的限制，主要以讲述简·爱与罗切斯特爱情的篇章为主线而展开情节。本书的章节和题目是编者根据节选的内容添加的。

## 제1장 비참한 어린 시절

**2** 날은 산책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침나절<sup>1</sup> 한 시간쯤 잎이 떨어진 관목 사이를 돌아다니긴 했으나 점심 때가 지나고 나서는(친구가 없을 때 리이드 부인은 일찍 점심을 먹는다) 살을 에이는 듯한 찬바람이 어두운 구름과 함께 비를 몰고 왔기 때문에 문밖에 나가서 산책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 긴 시간 산책한다는 것은 여간 싫은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날씨가 추운 오후에는 손발가락이 얼어들고, 보모 베시한테까지 야단을 맞아 기분이 언짢은데다가, 리이드 가의 엘리자, 존, 조오지아나보다 체력이 약하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앞서 말한 엘리자, 존, 조오지아나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응접실에 모여 앉았다. 벽난로 앞의 소파에 기대고 있는 어머니는 아이들한테 에워싸여(이때는 그들이 싸우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있었다) 지극히 행복하게 보였다. 나를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도록 떼어 놓고, 그녀는 이렇게 뇌까렸다.<sup>2</sup> “너를 멀리하는 것은 미안하긴 하지만, 네가 좀 더 귀엽성 있는 아이로 말하자면 좀 더 명랑하고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베시가 나한테 말해 주고 또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아이들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특권을

## 第一章 悲惨的童年

**那**一天不可能去散步了。我们早上已经在残叶落尽的灌木丛中逛了一个钟头；但是，过了中午（如果没有客人，里德太太是很早吃午饭的），冬日的凛冽寒风就送来了那样阴沉的云和那样透骨的雨，这就不可能再在户外活动了。

我倒是很高兴，我素来不爱长时间散步，特别是在寒冷的下午。对我来说，在阴冷的黄昏回家实在可怕，手指和脚趾都冻僵了，还得听保姆白茜的责骂，弄得心里很不痛快，而且自己因觉得体质不如伊丽莎、约翰和乔奇安娜·里德而感到自卑。

上面提到的伊丽莎、约翰和乔奇安娜·里德，这时候都在客厅里，正簇拥在他们的母亲周围，她斜靠在炉边的沙发上，心爱的儿女都在身旁（这会儿既不争吵，又不哭闹），看上去很快活。她没让我和他们在一起她说她很遗憾，不得不叫我离他们远一点；除非是白茜告诉了她，而且还要她自己亲眼看到，我确实是在努力培养一种更加天真随和的性情，一种更加活泼可爱的态度，否则，她真的不能把只给

1 나절：半天，（白天的）某个时候。

2 뇌까렸다：唠叨，念叨，胡诌。

너에게 줄 수 없다.”

“베시가 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하고 나는 물었다.

“제인, 나는 꼬치꼬치 묻고 이유를 따지는 사람을 싫어하는 성격이야. 그리고 그것이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하는 말버릇이냐? 거기 아무데나 앉아서 상냥한 말이 나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

웅접실 바로 옆방이 아침식사를 하는 조그만 식당이다. 나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책장이 놓여 있었다. 그림이 많이 들어 있는 책을 한권 꺼집어냈다. 창밑에 있는 의자에 올라가 터키인처럼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리고 나서 빨간 모직물로 된 커튼을 꼭 치자, 나는 이중의 은신처에 숨게 되었다.

빨간 커튼은 나의 오른쪽 시야를 막았다. 왼쪽의 투명한 유리창은 11월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 주었지만 바깥풍경은 차단하지 못했다. 책장을 넘기면서 나는 가끔 창밖의 겨울 오후 풍경에 눈길을 돌렸다. 먼 곳은 안개와 구름으로 허옇게 보였고, 바로 눈앞에는 비에 젖은 잔디와 폭풍에 쓰러진 관목이 보였으며, 끊임없이 내리는 비는 무섭도록 휘몰아치는 바람에 부대끼고 있었다.

나는 내가 들고 있는 비위크의 『영국 조류사』라는 책에 눈길을 옮겼다. 본문에는 대체로 관심이 없었으나, 서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냥 넘겨 버릴 수 없었다. 거기에는 해조의 서식처 즉 해조만이 살고 있는 〈고독한 바위와 꽃〉이라든가, 노르웨이의 최남단인 린데네스와(또는 네이즈) 노오드 케이프 사이에 작은 섬이 산재해 있는, 노르웨이의 해안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거기 북해의 발가벗은 어두운 섬 주변에는  
대양이 거칠게 소용돌이치고,

知足快乐的小孩的那些特权给我。

“白茜说我什么？”我问。

“简，我可不喜欢吹毛求疵<sup>1</sup>或者寻根究底的人；再说，小孩儿这样打断长辈的话，实在可怕。找个地方坐着，不会和气说话就别张嘴。”

客厅的隔壁是一间小小的早餐室。我溜进了那间屋子。那儿有一个书架，我挑了一本图画很多的书。我爬上窗口，缩起脚，像土耳其人那样盘腿坐着，把波纹红呢窗帘完全拉拢，我就隐蔽在双重的隐身处了。

绯红帷幔挡住了我右边的视线，左边却是明亮的玻璃窗，它保护我免受十一月冷空气的侵袭，却又不把我与外界隔绝。在翻书页的当儿，我偶尔眺望冬日午后的景色。远处，只见一片白茫茫的雾霭；窗外，却是湿漉漉的草坪和风雨袭击下的灌木，一阵凛冽的寒风驱赶着连绵不断的雨狂驰而过。

我重又低头看书，是比维克的《英国禽鸟史》。文字部分我一般不感兴趣，但有几页导言，虽说我是孩子，却不愿随手翻过。里面写到了海鸟栖息之地；写到了只有海鸟栖居的“孤零零的岩石和海岬”；写到了自南端林纳斯尼斯，或纳斯，至北角都遍布小岛的挪威海岸：

那里，北冰洋卷起巨大的漩涡，  
围绕着世界尽头光秃凄凉的海岛咆哮，

1 吹毛求疵：털을 불어 가며 흠집을 찾다. 살살이 뒤지다.

대서양의 거센 파도는  
폭풍이 몰아치는 해브리디즈 제도에 몰아친다.

그리고 랭란드, 시베리아, 스피츠베르겐, 노바 젬블러,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등 황량한 해안과 더불어 ‘북극지대의 광활한 지역과 인적이 없는 지방’에 관한 것을 읽지 않고는 넘길 수가 없었다. 이곳은 서리와 눈의 저장소이며 몇 세기 동안의 겨울의 퇴적물인 단단한 빙원은 알프스의 봉우리를 몇 개 겹친 것만큼이나 두껍게 극지를 에워싸고 극한상태로 응축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러한 죽음 같은 백색지대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sup>1</sup>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어린아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희미한 상념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으나 그런데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서론에 적힌 이러한 문구들은 다음에 예시된 그림들과 연결되어서 파도 속에 우뚝 솟은 암석이라든가, 인적이 없는 해안에 좌초된 조난선이라든가, 지금 막 가라앉으려고 하는 난파선을 구름 사이로 바라보고 있는 창백한 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또한 쓸쓸한 교회 묘지의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비문을 새긴 묘비가 있고, 문이 있고,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고 낮은 지평선이 허물어진 벽에 가리워져 있었다. 지금 막 떠오른 초생달로 봐서 초저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나의 감정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다.

잔잔한 바다 위에 움직이지 않고 며 있는 두 척의 배를 나는 바다의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악마가 도둑이 지고 가는 짐을 빼앗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나는 얼른 책장을 넘겼다. 너무나 무서운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검은 뿔이 난 괴물이 바위 위에 초연히 앉아서 아득히 멀리

大西洋惊涛骇浪激荡起落，  
注入风雨交加的赫布里底诸岛。

还有一些部分我也不可能放过，那就是下面这些地方的荒凉海岸：拉普兰，西伯利亚，斯匹次卑尔根，新地岛，冰岛和格陵兰，还有“那辽阔的北极区域，和那些阴暗荒无人烟的地区”那儿是冰雪的贮藏所，经过几百个隆冬的积累，已经成了一片坚实的冰野，像阿尔卑斯山般一峰高似一峰，冰面晶莹光滑，绕着地极，积聚了严寒的无穷威力。对这些惨白色的区域，我形成了一个我自己的看法，却又出奇地生动。这几页导言里的文字都是和后面的小插图有关联的：屹立在波涛汹涌、浪花飞溅的大海中的岩石，搁浅在荒凉海岸边的破船，还有那从云缝间俯视沉舟的苍白的月亮，导言中的文字就使这些画面变得有意义了。

还有一幅凄凉的教会墓地的画。那里有刻着铭文的墓碑，有一扇大门，有两棵树，地平线被四面破墙阻隔，还有初升的月牙儿，证明已经是黄昏时刻。我无法说清这些画带给我的感受。

两条大船停在凝滞不动的海水上，我相信那准是海上的幽灵。

魔鬼从背后按住窃贼的包裹，我赶紧翻过去。这是幅可怕的图画。

同样可怕的是，那个头上长角的黑色怪物，

1 나름대로：按……  
设想，按……方式。

교수대 주위에 모여선 군중을 내려다 보고 있는 그림도 역시 무시무시하였다.

모든 그림이 각각 한 가지씩 이야기를 지니고 있었다. 나의 미숙한 이해력과 유치한 감정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러면서도 흥미진진했다. 베시가 겨울밤에 가끔 들려 주던 이야기에 못지 않게<sup>1</sup> 재미있었다. 베시가 어쩌다 기분이 좋을 때 어린이방의 난로 옆에 다림질대를 가져다 놓고 우리들을 주위에 앉히고 나서, 리이드 부인의 레이스 깃을 다림질한다든가 잠자리 모자의 가장자리에 주름을 잡으면서 옛날 얘기며 그밖의 민요, 그리고(나중에 가서 안 일이지만) 《파멜라》나 《모엘란드 백작 헨리》같은 소설에서 따온 연애담이라든가 모험담을 해줌으로써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었다.

비워크의 책을 무릎 위에 놓은 나는 행복했다. 물론 내 나름대로의 행복이었다. 이 행복이 방해받지나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그것이 너무도 빨리 닥쳐왔다. 식당 문이 열렸다.

“야! 새침데기야!” 존 리이드가 한 번 외치더니 말을 멈추었다. 식당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요게 어디 갔을까?” 하고 다시 중얼거렸다. “리지! 조오지!(누나들 이름을 부르면서) 제인은 여기 없어. 비가 오는데도 밖에 나갔다고 엄마한테 말해. 못된 년!”

“커튼을 치길 잘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숨은 곳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기는 존 리이드는 찾아내지 못할 것이였다. 그는 눈치도 없고 생각도 무딘 아이니까. 그러나 엘리자가 식당 문으로 머리를 들이밀더니 말했다.

“창가에 처박혀 있을 거야, 잭.”

나는 스스로 밖으로 나와 버렸다. 잭한테 끌려나온다는 것은 생

独踞于岩石上，望着一大群人围着绞架。

每一张画都画出一个故事。在我这样一个理解力还不发达、感情还不健全的孩子看来，这些故事往往是很神秘的，但也是饶有趣味的，就跟白茜有时讲故事一样。碰上她心绪好的时候，她把熨衣桌搬到婴儿室的火炉边上来，让我们坐在周围。她熨里德太太的挑花褶边，把水帽的边熨出褶裥，一边熨一边讲一些爱情和冒险的片断，来满足我们这些全神贯注、急于听故事的孩子。她这些片断都来自古老的神话和古老的歌谣；要不就是像我后来所发现的来自《帕梅拉》和《毛兰伯爵亨利》。

我的膝盖上放着比维克的书，那会儿真是快活；至少那是我自己的快活。我担心别人来打扰，偏偏就有人过早地来打扰了我。早餐室的门被打开了。

“嘿！阴郁小姐！”约翰·里德的声音在叫唤；

接着他听了一会儿，他发觉屋里显然是空的。

“她在什么鬼地方？”他接着说，“丽茜，乔奇！

（他在叫他的姐妹）琼不在这儿。告诉妈妈，她跑出去淋雨去了。坏家伙！”

“幸亏我拉上了窗帘。”我想：我急切地希望他别发现我躲的地方。约翰·里德倒是不会发现我的，这个孩子又笨又迟钝。可是伊利莎刚在门口探头一望，就立刻说道：

“她一定在窗台上，准没错，杰克。”

我立即走了出来，因为一想到要被这个杰克

1 못지 않다：不亚于，  
不次于，不低于。